

李 “AI, 성장의 핵심”… 반도체·전기차·의료기기 투자 잇따라

맷 가먼 AWS 대표 만나 투자 확약
향후 5년간 외국인투자 90억弗 유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속도전
‘AI 고속도로’ 구축해 성장 엔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90억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만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먼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50억달러(약 7조원)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달러(5조7256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중심은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AI 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가먼 대표는 “한국이 갖고 있는 크나큰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AI 시민을 위해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AI 고속도로’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는 한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AWS와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스케어, 유미코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2조9132억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한국이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

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및 기술혁신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나 찬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대표는 “유미코아는 40년 전 한국에 처음 공장을 구축한 이후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우리는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뷔 트란 지멘스헬스케어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5000만 달러(약 717억3000만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트럼프 “한국과 무역합의 임박… 中 시 주식과도 타결할 것”

최고경영자 CEO서밋 특별연설
한미 통상 강화·산업협력 확대
조선·반도체 등 기술동맹 부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할 것이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6분쯤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담당한 우리 정부의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하고 있다. /뉴스시스

내 사람들이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말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좀 덜 까다로운 사람이 왔으면 했지만 한국 측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전쟁보다 낫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중 관세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일 한국에 오는데, 만나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아주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말 훌륭한 분”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한국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흔히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문명을 구가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이 달성한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포함된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과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칩을 만들었고, 하루에 하나씩 배를 생산했지만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고 조선산업이 낙후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산업이 아주 발전했는데, 한국에서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를 들여 인수한 곳이다. 또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번영하면 동맹도 번영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국이 번영하면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엔비디아, TSMC가 미국에서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제 미국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며 “빠른 인허가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서예진 기자 syj@

HBM·SDV·로보틱스… 삼성·현대차·SK, 엔비디아 ‘초협력’ 시동

30일 서울 코엑스서 재계 총수 회동
AI 반도체·SDV·로봇 협력 논의 전망
K-산업 중심 ‘AI 연합전선’ 시동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AI) 동맹을 강화한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젠슨 황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GPU)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진행되는 자리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경주로 이동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와 젠슨 황의 만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고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SDV, 로보틱스 등 모

빌리티 설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민간 회동에서 젠슨 황과 이 회장이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채택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또 다음날 진행되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AI 생태계 기술에 집중하는 만큼 AI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

李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해달라”

>> 1면 ‘이재명-트럼프…’서 계속

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을 끝낸 양국 정상은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났다.

/서예진 기자